



ID저장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대통령기록관
16년 대통령 웹기록
참여정부자료실
청와대브리핑

봉하마을

봉화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추모페이지

▶ **말과 글**

연속극 끝났는데...

조회수 : 119270

등록일 : 2009.03.05 19:39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말을 건다.

“당신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정치 하지마라.’ 이런 글 올린 모양이지요? 정치 재개하
나? 이런 말도 나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현실정치 이야기 한마디도 안했는데? 정치는 무슨 정치요? 공연히 시비들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받는다. “연속극하나 끝나고 새 연속극 하고 있는데, 자꾸 지난 연속극
주인공이 나오니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 그럴 듯하다. 그런데 한참 있
다가 생각해 보니 나는 연속극에 나간 일이 없다.

“아니, 연속극에 나가는 누가 나가요? 언론이 자꾸 나왔다고 쓰니까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
지.”

사실 그동안에도 글을 여러 개 올렸으나 현실 정치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 하지 말란 법
도 없지만 정치한다는 소리가 욕처럼 들려서 그랬다. 그런데도 내용에 불구하고 글만 올리면
정치 재개란다. 앞으로 문밖에 나가면 그것도 정치재개라 할 건가?

글을 안 쓰면 될 일이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닫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인사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참 힘들다. 감옥이 따로 없다. 푸념이 아니다. 우리 기자들 참 큰일이다.

출력하기    

총평 271개

내마음 2009.03.05 19:42

허걱 ㅎㅎㅎ 반갑습니다..조중동의 삼류 소설 짜깁기는 계속 되지요 ㅎㅎㅎ

skkim4980@ 2009.03.05 19:44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 오~적 시청자들을 위해
2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금치민초 2009.03.05 19:45

제가 빌려드린 조그만한 소망 하나가
평생을 갚아도 부족한것인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귀송합니다

내마음 2009.03.05 19:45

만허공님 지금 뭐하는겁니까? 선착순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

BABO철이 2009.03.05 19:46

건강하시지요? 이렇게 창에서 뵙게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봉하가는길1 2009.03.05 19:47

반갑습니다~~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요역 안내

9년만의
비탈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부디 건강하시고요~~이젠 봄은 왔는데요~ 언제쯤 뵈을수 있을지~

공주님처럼 2009.03.05 19:47

안녕하세요..노무현대통령
기자들이 우리의 사랑을 막고있군요.
기자들이 제역활을 못하니..나쁜놈을 더나쁜놈만드는겁니다.
그피해는 온통 대한민국이 받고있고요..
기자들향해서한마디하세요.
우리사랑 막지말라

오늘은청춘 2009.03.05 19:47

존경하는 대통령님 글을 볼수 있다는 행복을 계속 누릴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려 댓글하나 못달다가 이렇게
대통령님 글에 댓글 달아 보네요.건강하시고 언제나항상 저희곁에 계셔주세요.

만허공 2009.03.05 19:47

(쪼매하게 말하시요)내마음님?왜 그러시는데요 ㅎㅎㅎ

방긋 2009.03.05 19:47

ㅎㅎㅎㅎㅎㅎ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노짱님~^^
여사님께 한말씀 들으셨군요~
남편들은 아내와 말로는 진답니다~ㅎㅎ

노짱님 아자~!!

현진 2009.03.05 19:47

^^..
오호..~~~
안녕하세요..^^
왜이리 지눈에 글이 잘보입니까요..?^^
아침에 못본글을 찾아서 이리 저리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여 가슴조이며 퇴근했지요..
하루종일 우울 하였습니다..
노공이산님..^^
건강히 즐겁게 지내십시오..
대통령님은 그러셔야 합니다..
이제는 편한히 행복 하셔야합니다..
그러시길 바라는 맘에 이리..지켜보는겁니다..제가요..
꾸벅..~~~

고도를기다리며{김현} 2009.03.05 19:47

노무현대통령의 최고의 강점

^^사람냄새^^

fantasy 2009.03.05 19:48

노대통령님 지방 초라한 신문기자들이 시청에 가도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정문까지 나와서 배꼽 인사를 하더라구요. ㅎㅎㅎ
실력없고 생각없는 무사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마음 2009.03.05 19:48

나 만허공님 땀에 내가 미묘 미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 지금 뒤로 자빠집니다푸 하하하

독신일중 2009.03.05 19:48

노공이산님 죄송 합니다. 제가 팔에 詩人 이랍시고 정치인 하겠다고 설쳤더니. 괜히 트집 잡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원인이니
까. 제가 욕먹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과해서 이니. 그들의 모습이 안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하
는 카니발리즘으로 해결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입으로 구전 되는 동화 처럼. 기억 되실 겁니다. 욕은 제가 설래발 처서
먹겠습니다.!!

하늘an바람 2009.03.05 19:49

에공~~자리확보 하느라 점만 찍었어어~
원제 손 빠른분들 많이 계셔서~~
글 님 감동적 입니다..마치 일반 회원님들이 글 올리신듯 하게
올리신글~~~
노무현 전 대통령님...
기자들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저희 사사제가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님 따르며 지키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씬게 저희들 마음 입니다~
항상 저희 곁에만 계셔 주시길 빕니다~

마당 2009.03.05 19:49

하하하 노짱님 화이팅!!!! 근데, 저 밑으로 다 출서세요. 제가 2등할 뻔 했는데... 그래도 4등이 어딴니까? 품 줘 잡읍시다... 자~ 자~
이쁘게 줄 서세요... 세치기 안됩니다!!!!

NZ 2009.03.05 19:50

여사님 안녕하시지요? 노공이산님 부디 건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인사드려요. _O_

만허공 2009.03.05 19:51

어차피 님의 인기가 많아서 그러니 계속 출연해 주시죠.
이참에 드라마도 하나 새 것으로 준비하고요....

코발트 블루 2009.03.05 19:53

존경하는 노대통령님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젯밤 혹시나 음악회에 오실려나 기다리다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TT
항상 건강하세요~

kjj7011 2009.03.05 20:00

끝난지 오래된 대장금 지금도 인기가 여전히던데요. ㅎㅎ

다불어 2009.03.05 20:00

노공님
노공님은 전직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어울려 사는 것을 사시로 보는 인간들이 문제지 노공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의 주인장이면서 이웃과 서로 소통하면서 인간적 삶을 사시는 것을 여사님도 뭐라고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대통령 이전에 인간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노공님 회원들과 편안하게 소통하시는 것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쭉구리 2009.03.05 20:01

보고싶습니다 TT

만허공 2009.03.05 20:01

님의 인기로 봐서는 새 드라마 한편 더 써서 다시 주연으로 출연하시어도 흥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북두 2009.03.05 20:02

맞습니다. 맞고요.

노공님은 연속극에 나가신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저 살벌한 라이부세상에서 살고 계신겁니다.

여사님은 것도 모르시면서 괜히 옆구리를 찌르시구...

여사님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연속극좀 연속금지하시라고... ㅎㅎㅎㅎ

그런데 그 다음은 제가 책임못집니다. ㅋㅋㅋㅋ

귀거래사 2009.03.05 20:02

멋쩍습니다 노짱님
항상 건강 하세요 사랑합니다^^*

냄비뚜경 2009.03.05 20:03

왜 그렇게 노대통령님을 울리 먹는지 참 기자님들 정말...
하기사 우리기자님들도 건수를 울려야 되니 개념치 마십시오

도투 2009.03.05 20:05

그러게말입니다.
노공이산님... 뭐 어쩍니까?
울노무현대통령님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걸...
현실정치가 요모양저풀이라서 더욱더 그런거 아닌지요?
요즘 정말 노공이산님이 한없이 한없이 그렇고 보고싶습니다.
노공이산님 이제 슬슬 기지개 켜시고 인사 나오셔야죠?네?
보...고...싶...습...니...다.

메뚜기아빠 2009.03.05 20:06

하하하...
노공이산님의 가식없는 이야기를 보고 웃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희들은 소셜써라 난 나 할일만 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에궁~ 감히 노공이산님께 주제 넘은 충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철푸덕...

바보사랑 2009.03.05 20:08

보고싶습니다
설마? 하고 보니까 대통령님이시네요
2주전 비오는 일요일 봉하마을에 갔었는데 못봐어서 정말 서운했습니다
멍하니 사저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던지
대통령님때문에 행복하고
대통령님때문에 슬픉니다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니리짱 2009.03.05 20:12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님을 존경합니다.

보석함 2009.03.05 20:14

댓글 달게 되어 넘 기뻐요
대통령님이 봄입니다.

山中나그네 2009.03.05 20:14

대통령님,
수육정이풍부지 란 말에 실감합니다,

새로운 연속극이 재미없으니
지난 연속극 주인공을 대비시키며 시청률을 높이려는것 같습니다,
이장폐천이란걸 알기나 하는지 지금의 주연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홀홀 털어버리시고 올 농사지으셔야죠?,,, ㅎㅎ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꾸벅...

지금/여기 2009.03.05 20:16

와우~ 두 분 대화가 밖으로~! 신선합니다.~^^
노공이산님~! 댓글로 대화해요~~~~~
프랑스의 바람을 실어서 보내겠습니다.
아니,, 참, 저희 모니터링 동호회에는 며칠 전 노공이산님 모시고(?) 다녀 온 프랑스 서남부 지방 봄 나들이 사진 오늘 올렸습니다.
보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 같긴한데... 그러니까 모니터링 동호회 가입하셔 주세요~~~*^^*)

바보사랑 2009.03.05 20:18

대통령님 새연속극 정말 재미없어요..ㅠㅠ
아주 괴롭습니다

산소맨 2009.03.05 20:19

대통령님 내외께서 보신 연속극이 뭔지 무지 궁금해집니다...
전 드라마 전혀 안보는데 갑자기 보고싶어졌습니다..ㅋ
기자들이 짜질거림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불편하실까 제맘이 짹합니다..
멀리서 항상 강건하시기만을 염원합니다^^

미국농꾼 2009.03.05 20:22

봄이 오긴 오는가 본데, 봄갈지 않은 봄이 옵니다. '대란'이란 꽃을 피울까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평양 건너 미대륙 건너에서
도...
늘 건안을 기원합니다.

수니서니 2009.03.05 20:25

노공님을 두번이나 보다니
신나고 또 신난다.
노공님 이제는 맨날 맨날 보고시포 어찌죠?

笑而不答 2009.03.05 20:36

물 본 기러기 꽃 본 나비 마냥 신난 조중동과 여당정치인들
반대를위해 태어난 트레바리들

유니트 2009.03.05 20:38

우리 기자들 참 큰일이다 2.
건강 하셔야 합니다.

발목잡이 2009.03.05 20:39

화장실을 다녀와도 "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렇게 쓰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언론)그것을 정말 사실인냥 믿는 사람과 또 그사람이 여러사람 모인 좌석에서 노무현이가 정치를
할거래!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것을 배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정도행보 2009.03.05 20:40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두려운가 봅니다,
아무말씀도 하시지 않아도 겁부터 나는가 봅니다,
그만큼 노공이산님이 크게 자리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아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시고 싶으신 일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건강 하세요~!!(꾸벅)

전월성 2009.03.05 20:41

평범한 대화가 우리 가슴을 쉬게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조용하고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 오는 느낌입니다.

ZzinG 2009.03.05 20:50

보고싶어요, 노짱님!! 노짱님 글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배꽃향기 2009.03.05 20:51

타인에 대해 관대하면서도 그 관대함이 때로는 지나친 간섭 내지는
그들만의(혹은 개인의)기준을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확대시키기도 하면서..
그러한 간섭문화(?)가 사실 대한민국에겐 아주 깊숙히 자리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소소한 행동이고 공공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구나 공인이었다는(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이유만으로
더한 제약과 침해는 비밀비제 하기도 하고요.

본인에게 관대한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타인에게 관조의 자세를 가져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그것이 민주주의 시작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모든 자유를 행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마음 편히 가지시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의 소신과 행동을 믿는 더많은 국민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다섯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대로(?)만든 따끈한 머핀이 있는데 가까이 계시면 디저트로 드리고 싶네요. ^^;;

빨간사과꼬마 2009.03.05 20:51

짧은 노짱님의 글에 웃음 지었습니다

글쟁이들.
지들 맘대로 떠들라 그러십시오 ^^

축제 2009.03.05 20:53

노대통령님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이명박 대통령도 가끔 들어오셔서 우리 들의 글을 읽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에서 장로님이신데 예수님 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노무현님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계시다가 시골에 있으니 답답하지 않느냐 청와대 한번 놀러 오시라.
만나서 대통령끼리 정치의 어려움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협조 하고 농사 짓는데 비료라도 몇 푸대 보내 드리고 대통령님 생가에 목련 나무라도 한그루 기념으로 심어 드리고 서로 활짝 웃으며 악수 하는 사진을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세를 너무 잘 못 한다고 생각됩니다.

읍내귀신 2009.03.05 20:54

진정으로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방송 보는중입니다 ㅎㅎㅎ

가ैया빠 2009.03.05 20:55

허걱~~또 글을남기셨네
우와 오늘진짜무 잠 다자다 잉~~~

아주르 2009.03.05 20:56

^^존경하는 마음 그 이상입니다.

포돌이엄마 2009.03.05 20:58

사사세에 가입 안했음 어쩔뻔 했는지... 정말 사람사는세상에 온거 확실합니다.정말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옆에계셔서 밥안먹어도 힘이 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합니다^^

울빛대 2009.03.05 21:02

노대통령님 댓글 달기 두렵습니다.
영부인님과 늘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笑而不答 2009.03.05 21:03

히야~~ 노공님 답시니 배꽃향기님이 오셨네 ㅎㅎㅎ
배꽃향기님 반갑습니다 ^^*
이건다 노공님 탓이야^_____^

cjsals 2009.03.05 21:04

역시 노대통령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저에게 일깨워주신분입니다^ 기자들은 할일 없조 기사쓰려면 좀 긍정적으로 쓰던지... 감사합니다^

sumi51 2009.03.05 21:13

정말 뵈울수 없게되어 섭섭하기도 하고 야속기도 했는데 이렇게 평범하고 다정한 시간의 이야기를 올려주시니 참말로 제가 대통령님 좋아하는거 정말 잘한일입니다.
소리치고 싶습니다.
기분 조오~ㅎ다 녀 녀
무진장 행복합니다. 힘든 사람들과 희망을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든거 함께 하고픍니다.

sumi51 2009.03.05 21:17

댓글 달고 다시 한번더 글을 읽었습니다.
ㅎㅎㅎ 보고픈 사람들 오고픈 사람들만 오는데 청와대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요 강제로 억지로 봉하마을오라는것도 아니고 내발로 내 차비 먹거리 들어가며 가고픈 마을이고 대통령님이신데 왜? 보고싶어요 아무것도 원하는거 없어요
그저 노짱님을 뵈오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들과 힘을 주시니

...

뭇 2009.03.05 21:17

지난 연속극이 더 재미있다고 그 주인공 연기 잘 했다고 시청자들이 칭찬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ㅋㅋㅋ 재미없는 현 연속극 아무리 홍보를 해봐라 보는가!!!-.-∞

지낭 2009.03.05 21:17

어디선가 본 듯한 유난히 미소가 긴 그 사람... 감사합니다. <^-----^>

좌과 2009.03.05 21:19

권양숙 여사님!

지금 하고있는 연속극이 재미없으니

지난 연속극을 자주 회상 하는것 이겠지요.

오바마가 힐러리를 기용하니까 조/중/동에서는 화합의 정치를 한다고

입에 침이 말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동영이와 김근태를 장관으로 기용하니

그들은 코드정치 한다고 지랄들을 했습니다.

웃키는놈들 이지요?

대통령님!

기자 썰이들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내가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하는데

당신을 회상하는 국민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찾김에 서방질 한다고 내용도 모르고 노대통령 욕했던걸

후회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화이팅♡

흙마당 2009.03.05 21:23

웃다가... 읊니다.
이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님께 가한 폭력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만 아득해집니다.

똥똥이 2009.03.05 21:26

살양하는 노공이산님^^~
님 신경쓰지 마세요. 언젠 안 그랬나요.
늘상 저들이 하는 일이라곤ㅋㅋㅋㅋ..
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양하고 존경합니다.ㅋㅋㅋ

파란노을 2009.03.05 21:46

똥한 노공의 얼굴이 떠올라 한 참 웃다가 그만 울컥 울었습니다.....!!

보미니&성우 2009.03.05 21:48

노공님 견제하려는 세력이 많은거 같죠? ㅎㅎ 제 생각에는요...게이치 마시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것이 훨씬 맘 편한거 같아요~~

도원경 2009.03.05 21:49

언제나 대통령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역사가 대통령님을 바로평가 할때까지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대통령님!

터진후라이 2009.03.05 21:49

적당히 간결하고..마지막 한줄의 의미심장한 함축의 포스?...ㅋㅋ
요근래 제가 느끼고 있는 (마당)님 스타일이신데..^^
많이 갑갑 하신게 다 전이 되어져 와요.
언론사 사람들아. 우리 이렇게 살게 좀 내버려 두시웁.
땃글놀이도 하고 자유로이 소풍 좀 하고 살게
말리지 마란 마리아~ 버럭.

파천아줌마 2009.03.05 21:52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같이 친근한 글을 올려주시니 미소가...
사람세상에 들어오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얼음공주 2009.03.05 21:57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민드라마가 아니었을까요? 여사님과의 대화시간이 행복하실것 같습니다.
이 즐거움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새로하는 드라마가 막장드라마기에...사람들이 지나간 국민드라마를 찾는거라 생각합니다.
항산 평안하세요~~~

digna 2009.03.05 22:09

글도 자주 자주 많이 많이 올려 주시면
그러려니 하겠조...
일상사일테니까요.
노짱님
오늘도 혹시? 하고 걸음 재촉하면서 돌아 왔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연☆ 2009.03.05 22:18

매일 눈으로 읽기만했던 올해 28세가 된 처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회원가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 저도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생 존경
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노무현대통령님과 같은 정치인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할 공부가 많고 사는게 점차 버거워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곳에와서 늘 마음을 가다듬고 많은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노무현대통령은 정말 멋진분이십니다. 글도 정말 잘쓰시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투표를 하였을때 그때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두번째 대통령 투표를 했을때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잔뜩 꾸짖하고싶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 합니다.

비밀정원 2009.03.05 22:24

연속극은 끝나고 새로운 연속극이 시작 되었지만,
끝난 연속극 주인공에 빠져 여전히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속극의 새로운 주인공이 영~ 성에 차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전, 지난 연속극 주인공이 너무나 좋습니다...노짱님!!

원더우먼 2009.03.05 22:24

노공이산님의 홈페이지,,, 의견남기고,, 추천해주시고, 댓글 달아주고,,,
당연한겁니다.... 괜히 시비가 걸고 싶은 인간들,,,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면 안될까요? ㅎㅎ,,, 지금 현직 대통령은,,, 누가 욕하든 말든 무시하고,, 자기 하고픈대로 잘만 하더만요,,,
여기는 노공이산님 홈페이지다,,, 내집에서 내가 밥을먹든, 잠을자든,,,
한번 두번 갑죽거리다가,, 저네들이 지칩니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잘 길 갑시다,,, 네~~~~

붕어마니 2009.03.05 22:30

기자..
그야말로 천적이 없는 권력자들...

난술잎 2009.03.05 22:33

대통령님 맞습니다! 우리 기자양반들 참 활 일 없습니다!
아마 저들은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움직이셔도 정치체게 운운 할 것 입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 자신이 글 올리고 회원들 글에 댓글 다는데
저들이 시비로 삼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들에게 대통령님의 저력이 공포라는 것 입니다!
저들은 내심 대통령님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마부위침 2009.03.05 22:36

진인이십니다.
따듯한 봄날에 뽕기를 청합니다.
아해들 떠드는 소리 귀기울이지 마소서..귀 나빠지십니다..

비단장시 2009.03.05 22:45

생각해보니 지난연속극이 너무 좋았던것 같습니다 .
여운이 길~~~ 게 지금도 계속남아 있습니다.
정치외정 " 이란 말만해도 기절을 하는 저들입니다
그냥 게의치말고 할말 막하세요~
말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공님을 이해합니다 .

부산학생 2009.03.05 22:57

기자들이 드라마작가 처럼 글을 이슈화되려고 만들라고 애를 씁니다..
참..안타까운 일입니다.

토르(블루핑크) 2009.03.06 00:08

제 아시는 분이 노공이산님 국회의원이실때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공이산님을 보고 있으면 독야청청 낙락장송 같으시다고..

그런데 저는 과거의 노공이산님 모습도 좋지만, 현재가 더 좋습니다. 아아..
그 시절엔 제가 모르는 추억들이 더 많기 때문이고...지금은 이렇게라도 노공이산님의 홈페이지에서 소통할 수 있기에 더 인간적인
매력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불편하신건 좀 괜찮으신지요.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푸른소나무@ 2009.03.06 00:18

대통령님 싸구려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던 상관마십시오..
대통령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글들이 국민들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늘 배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나름노사모 2009.03.06 00:24

댓갈달고들 신이나서 이곳 저곳 방방 떠다니는 회원님들이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서야 대통령님의 글을 보았어요.
생생뉴~스처럼 들리는 여사님과의 대화. 정말 늘 궁금했었거든요.
대통령님도 여사님과 그런 대화를 하시는구나...
왠지 예전부터 대통령님택을 마실다니는 가까운 지인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차칸늑대 2009.03.06 00:41

그냥~~웃어주지요...(=.=)

영원한노무현 2009.03.06 00:44

저는 이렇게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흔적만 보여도 일상에서 훈훈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여기계신,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모든분들이 영원하게될 그런 세상이 서서히 만들어 나가게 될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 정부에서 달콤한 참맛을 살짝 봤으니 벌써부터 다시 맛보고 싶어 난리 인거 같습니다 ^^
저희의 ,,우리들의 ,, 그리고 모두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멘토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신의 큰 발자욱... 그 선명한 길로 저희들은 거침없이 내딛을 것입니다.
권 양숙 여사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빨소 2009.03.06 06:06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진흙탕 속에서 덩구는 것을 좋아하니 진흙탕이 튀기게 되는 것이지요.

시급히 해야 할 일

- 1.대한민국 주인 찾기 운동
2. 개인 소득 배가 운동

아무든 이런 토론의 장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그릇을 읽을 수 있네요. 그런데 집권시에는 왜 그렇게나 마음그릇이 적었는지요?

처음 대통령으로 출마하였을 때 호랑이의 기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좋아 했었는데, 집권 후 코드인사를 보고는 호랑이는 분명히 호랑이인데 새끼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무척이나 실망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권좌에서 물러나고 보니 마음그릇이 굉장히 커졌네요.
역시 마음을 비우니 그릇은 커지는군요.

didfls 2009.03.06 08:31

히히히 아이들 보내고 얼른 들어왔어요.
마음은 계시관에 있는데, 왜 이리 아침부터 전화는 오는지...
노짱님을 닮아 지가 인기가 좀 있어요. 공주병이죠.
아, 우리 노짱님도 여사님과 이런 대화를 하시는구나,
역시 여사님이 조금 더 강하시구나.등등
머릿속으로 마구 그려지는거 잊지요.
조,중,동 그것들이 속이 없어서 그래요.
으쩌겠어요. 사람된 우리가 참아야지요.ㅋㅋ
노짱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산바다강 2009.03.06 08:42

정말 힘드시겠어요...하지만!

여사님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인의노래 2009.03.06 09:32

얼마나 힘드실까~~

엔돌핀가득 2009.03.06 09:42

아침부터 노공님글을 보니 오늘하루 즐거운 일만 가득할것 같네요....
노공님 건강하세요.

kongju 2009.03.06 09:43

대통령님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글마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힘이 됩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글구 여사님두요 *^^*

보리과 2009.03.06 10:02

행복한 하루 되세요^^~~

포테기 2009.03.06 10:05

참 재미가 있는 정부입니다.
뒤통지, 권력을 잡으면은 저리도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정부인것입니다...
뭘 잃어버리고...뭘 60년 후를 바라보는 정부인지.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진리는 언젠가 깨닫게 되어있고.
모든 사람들은 한번겪어보아야 된지 알게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된다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휴....
힘내십시오..저희들이 있고,,,더 많은 활동을 하십시오
보란듯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시고,,,강연도 다니시고...
더 많은 활동을 하시면은 더 온신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누구라도 나설려고 하는 지도자는 없는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꼴을 먹으려고하지 쓴소리는 신경을 쓰지않고,,,눌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권력기관의 동원...
정말로 앞으로 기본이 삼권분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그리고 기대도 되구요

그리고 여사님 ,,
저도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연속극도 재미가 있고..이야기의 전개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청률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화려하게 시작하였다가 타 방송사의 연속극에 역전이 되기도 하고
아예 채널을 돌려 버리기도 한답니다...
지금하는 연속극은 지대로 짜증이 나는 연속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속극 게시판 자체에 관심이 없으므로 인하여 댓글도 올리지를 않지요..
저희들은 지금하는 연속극 보다는 정말로 재미가 있고,,,흥미가 있는 연속극을 자꾸 재방송으로 봅니다....어떨때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요..
여사님 채널돌리시면 됩니다.....건강하세요..
대통령님 힘 내시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습 자주 비추어 주세요...보고싶습니다...두분 사랑합니다..

國事峰 2009.03.06 10:12

우리 기자들 참 큰일이다 2
세간에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 사는 세상을 얼마나 염원하셨으면 그런 이름의 사이트를 만드셨을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의식 있으신분..우리 정치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님..
2003년 정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써서 top글에 올랐던 제 글 마지막 당부가 뭐였는지 아세요?...^^
'퇴임후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소망이 이뤄졌지요. 그것이 저는 너무 기쁘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아니 영원히.. 노공이산 노무현님과 언제나 자제로우신 권양숙 여사님이 함께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시고 그렇게 바라셨던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동무 자유롭게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남 선대위 상황실장 국사봉 조광국 정중히 꾸벅 인사 올림!^^
p.s.
그후 계몽시원에게 출마할 때마다 전에 서울 있을 때 노공이산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선거공보에 올리고 비록 두번 다 낙선했지만(두번째는 22표차로 ㅠ.ㅠ) 언제나 그 사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보너스~ 이 글을 늦게 보았지만 강추 한방 팽!!^^

수박한통 2009.03.06 10:58

이제야 발견했는데 닉을 노공이산에서 실명으로 바꾸신거예요?^^

만촌아재 2009.03.06 11:06

조중동문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우리역사의 한페이지가 되겠지요.

긍정적으로...늘 이렇게 뻘뻘어져 살기야 하겠습니까?...점차 바뀌어 가겠지요.

pianoman 2009.03.06 11:13

재미없는 연속극은 요즘 조기종영이 대세!!!!

난남자 2009.03.06 11:13

우리 기자들 큰일 이다...
맞습니다...

기자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사실 확인 되지 않은 기사를 쓸 경우 언론사에 제재를 가 하는 강한 법을 만들어야 인터넷 문화도 좋아 질 것 입니다

돌배1234 2009.03.06 11:21

우리에게 있어 아직 언론은 후진국입니다.
잘못된 역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다시 돌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부더라도 역사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맨발각시 2009.03.06 11:28

잘 만든 연속극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즌2, 시즌3, 시즌4...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갑니다.
저는 참여정부 시즌2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든 안바뀌든
그 기초와 정신을 이어가는 연속극,
하루라도 빨리 나와주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중도논객 2009.03.06 11:33

노대통령님! 왜 스님들이 목언수행을 할까요?

어른이되고싶은아이 2009.03.06 11:40

아니 그 수많은 것 중등 아이들의 말도 안되는 향연도 꽃꽂이하 어렵게 좀 버티셨는데 이 조그만 언론 기자들 아이들한테 심각한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안타까워요 힘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죽을때까지 제 안의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힘내세요

**** .. ~ . !
*전 지금의 대통령 아저씨나 한나라당 정치인들이나 보수 어찌고 하는 그런 인물들을 '아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 먹도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먹을것만 쟁기려는게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 같잖습니까~?
제가 인정하는 어른은 부모님 누나 날 가르치는 형님과친구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브로콜리 2009.03.06 11:42

감옥이다라는 말로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 참~
읽는 사람들이라도 원글 한번 씩 읽어 보시다면 좋겠네요.

상수리 2009.03.06 12:04

대통령님, 여전히 저에게는 마음속의 대통령이므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 뭐라 하든 신경쓰지 마세요. 배운 지식을 양심도 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알아서 써먹는 그런 친구들은 무시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계획하는대로 누가 잘 써먹는 말대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곳곳하게 행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사님과 가족들 모두에게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만식객 2009.03.06 12:06

대통령님 두분의 식사모습이 그려집니다.

참 사람사는 향기가 납니다. 당신이 그림습니다..^^*

돌맹이 2009.03.06 12:08

정말 우리기자들 큰일입니다. 사람노릇이라도 하고 살겠습니까..
대통령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정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먹고살자고 사람다운 모습까지 버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인드라망 2009.03.06 12:09

노공이산님... 저는 "노무현 season2"를 원합니다. 시즌 3, 시즌 4.....
권양숙 여사님... 언론들의 말씀에 너무 쾌념치 마세요. 원래 "노무현" 연속극은 단막이 아니라 시리즈였거들랑요~~ 글구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재방송을 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

아사달 2009.03.06 12:37

댓글 등록창이 아래에 있는 뜻은 여기 오신분들의 의견도 한번 일람하라는 뜻으로 알겠는데 ... 다른 분들 리플을 보며 내려 오다가 정작 내 하고 말의 실마리를 잊어버려, 여기까지 와서 왜 왔지...라며 썼습니다.
물론 노공이산님 글은 봄빛처럼 읽었습니다 ^^

매주님 2009.03.06 12:56

점심(사발면)먹고 바로들어왔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한가득 머뭙니다
노공님, 여사님 두분 너무 사랑합니다,어제는 조부님 기일이라 친정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 즐거웠는데, 오늘은 노공님과 여사님으로하여 즐겁고 신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연속극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들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두분 건강하십시오

가행수 2009.03.06 13:07

아~~~!! 참~~ 저도 속상하네요.. 뭘 말만 해도 정치한다... 문 밖에만 나와도 정치한다.. 정말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정녕 노공님의 정치하지마라 라는 글을 이해를 못했는지.... 꺾~

술가실 2009.03.06 13:32

그님의 인기때문입니다.기사떠우면 판매부수 조희수 댓글수 무지무지올라갑니다. ㅋㅋ 방심하시진마시고 편안히 지내세요.

newstep 2009.03.06 13:43

노짱님 그런데요...배용준씨가 언제쯤 찍은 겨울연가를 가지고 아직도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까...말인즉 배용준인기=노무현대통령님 인기 인것입니다...그러니 너무 속상해 마시길 바랍니다!!!

신의소리 2009.03.06 14:11

노공 이산님!
저들은 노공이산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물고 늘어 지지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말도 되구요.
인기가 있는만큼 시기도 있습니다.
그냥 개념치 마시고, 하고 싶은거 모두 하세요!

연속극에 출연하는건 일반 범부로서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만 노공 이산님의 입장에선 참으로 부담 스러우실 겁니다.

차라리, 새로운 연속극을 노공이산님 연출로 하여, 직접 꾸미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연속극에 출연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다면, 차라리 하고야 마는게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푸념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공이산님과 대화하는것만 해도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

훈사마 2009.03.06 14:13

개인적인 생각은 노짱님 솔직히 당신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안되겠죠. 저의 희망 아니 우리모두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세상에 희망이 필요할때 인것 같습니다 ㄷ
죄송합니다 답답하고 열통터져서 그냥한번 한소리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끼리코 2009.03.06 14:30

대통령님 당선되신 이후에,
후보시절 여사님께서 고대학생들과 가진 간담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차분하고 정직한 어조로 하나하나 대답하시는데
어찌 그리 논리정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지...
노짱님 말씀과 너무나 많이 닮아계시더군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도 그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사님이나 노짱님이나 어찌 그리 훌륭하신지요.^^*

이렇게 자주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무 2009.03.06 14:32

정치의 힘의 근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민심은天心이고 다수의 추대를 받은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노대통령께서 퇴임 후 1년이 지나도록
조중동같은 신문들이 노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사람에게 영향력 강하기 때문이겠지요
게다가 이명박대통령의 실책들로 인해
노대통령의 공적과 대비되어
사람들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다시 노대통령께 쏠리게 되어
이명박정부나 조중동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외팔에서 신발끈 묶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디 언행이나 글쓸때 남의 이목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도나처럼 2009.03.06 14:52

시청률 바닥에 끝없는 막장으로 치닫는 새 드라마를 보다가
종영된 명품 드라마와 그 주인공을 그리워 하는 것은 모든 시청자의 마음일것입니다...

청갈매기 2009.03.06 16:19

청와대에 계실때 조금 넓은 감옥 있었는데...
지금 아주 협소한곳에서 감옥살이를 하시는것 같아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왜이렇게 우리대통령님을 모르는걸까요?

오늘이 마지막인것처럼 2009.03.06 16:32

제가 비록 20대 후반이지만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더군요...하지만 의로운 사람, 좋은사람,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치 찬란하신 몇몇 기
자님들과 몇몇 사람들 보단 반드시 좋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몇 곱절은 반드시 많습니다. 힘내시고, 언젠
가는 우리 세상이 옮겨집니다...언젠가는...

무극이야빠 2009.03.06 16:34

휴... 가슴시린 시절입니다...

푸른내음 2009.03.06 16:39

다시보기 계속 할랍니다..오늘도 내일도~~!! 새로 시작된 연속극은 당체 봐 줄 수가 없으니~~

후과 2009.03.06 16:49

두분 모두 사랑합니다.

카리마 2009.03.06 16:50

ㅎㅎㅎ 대통령님, 여사님.. 두분이서 투닥이시는게 너무 정겹습니다.
두분 내내 건강하세요^^

중도논객 2009.03.06 17:02

맘에 안드는 댓글은 지우나 보군요. 양약은 입에 쓰나 몸에 좋다는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갈루아 2009.03.06 17:11

퇴임한 대통령 중에...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최초라...
기자들도 헛갈리겠쥬..
이런 것을 정치 참여라고 해야할지 말지...ㅎ
노짱님.. 핫팅...^^

pelham 2009.03.06 17:22

봄 개편 새 연속극이 이전만 못하니 시청자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짱님, 속편이란 것도 있습니다. 설사 주인공
이 바뀐다하더라도 전체 내용은 전편 끝쯤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것이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요. 그래도 전편만 못하다
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강건하십시오~~

돈나무 2009.03.06 17:32

표 ㅎㅎㅎ ㅎㅎㅎ 한참 웃습니다^^ 여사님께서도 센스쟁이신데요 ㅎㅎ 두분 대화 하시는 모습과 노짱님 얼굴 표정이 생각나 다시
웃음이 나네요~
우리 기자들 참 큰일이다<-> ㅋㅋㅋ 노짱님 역시 짱이세요!

과하 2009.03.06 17:38

언론이 아직도 비중있게 생각 한다는 것이겠지요!이제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건강하십시오^^

날아라병아리 2009.03.06 17:44

에효. 뻥속까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짱이 같은 하늘아래 없었다면 아마 이미 이 나라를 떠났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휴~~~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설수 있을까요???

노짱사랑 2009.03.06 17:57

노통님 진짜루 보고싶어요,,,

올해 빈집같은 사저에 두번이나 댕겨왔어유,,,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얼굴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싸랑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분이
노통님이시라는걸 아시죠???

노통님같은 반듯하고 따뜻하고 거기다 명석하기까지하신분이
남은 세대를 위하여 아무일도 안하신다는건,,,

너무너무 가혹한 낭비입니다,,,,,

재밋는글 잘 읽었습니다,,,

내맘속의 대통령 노무현

빨강머리엔 2009.03.06 18:05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은 지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ㅠ ㅠ

화는 2009.03.06 18:33

하하하 짧은글이지만 멋집니다.

안성사랑 2009.03.06 19:00

매일 밖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일일연속극 찍는겁니다.
대사까지 있으면 짱이고요.
그러면 기자들 참 바빠지겠지요?
어제튼 정겨움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안성사랑 2009.03.06 19:08

우리기자들 참 큰일이라고 하셨네요.
진짜 큰일이네요.
내일 신문에" 정치체계를 넘어서 아직도 언론을 탄압하려는 지난 정권"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날까 걱정입니다.

하나임 2009.03.06 19:49

마음을 사로잡는 장점이 많은신 당신이 시기에 시기와 질투가 많을 수 밖에요.....그 많큼 진실 하십니다.

통일 2009.03.06 21:40

ㅎㅎㅎ 좋은 글 자주 써 주세요 ^^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도 봉하마을의 생활일기 비슷한 것
자주 써 주세요 ^^
사람사는 세상이 느껴집니다 ^^
그럼 건강하세요 ^^

birdM 2009.03.06 22:14

글 계속 써 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대통령님. 제 마음속에 대통령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현재와미래 2009.03.06 22:27

다른 전임대통령들은 뭘해도 뭐라안하면서 왜 유독 노대통령님만
뭘 하시면 신경질적인 반응들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사람들한테 잘못된것도 없는데 말이죠. 너무 질색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웃겨
보일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속극 끝났는데 시청자들이 지난 주인공 자꾸
생각하는것은 지난 주인공이 연기를 잘했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 연속극 방영할때는 왜 더잘하지 못하냐고 타박하고 박대했던게 미안
한 마음도 있고, 새 드라마 주인공이 연기도 참 지지리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짱이짱 2009.03.06 22:58

종영된 드라마, 재방송하면 안 되나요?
TV에서도 종종 그러던데..ㅋㅋ

지금 드라마 남주도 마음에 안들고
조연들 출연장면은 주먹질에 욕설만 해대는 장면 일색입니다.
진짜 이 드라마, 조기 종영 안 될까요???

가브리엘라 2009.03.06 23:12

제 마음속의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뿐입니다...건강하세요~

자안 2009.03.07 00:25

노공이산님... 권영부인(전)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것 같아요..좀 시골에서 편히 지낼라카면...또 ㅎㅎ 일(사건)터트리시니..여성(분)들 말들어서 나쁠꺼 하나 없어요 귀담아 들으세요이잉...^^

tmfg18652 2009.03.07 00:43

재방송하면 안되나요?2

오늘이 마지막인것처 2009.03.07 01:41

내맘속의 대통령~ 노무현 포레버~!

황석산 2009.03.07 03:56

봉하마을은 저쓰레기들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피 2009.03.07 04:23

이제 봄이 왔는데 언제가면 노통님 뵈수 있는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달피인 2009.03.07 08:21

권여사님
연속극끝나면 주인공들은 어디로가나요.

더좋은다음연극을위해준비해야 되지안을까요.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연출이라든지 각본이되든지

그리고 극을위한 마당이 없어지는걸 바라지는 안으시겠지요.

내외분 건강하시고 오손도손 행복하세요

현자요수 2009.03.07 08:51

올해는 꼭 봉하마을 찾아가서 뵈고 싶네요. 힘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노짱님이 아프시면 우리모두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니까요.

가을하늘 2009.03.07 09:02

저도 꼭 봉하마을 가서 한번 뵈고 싶어요~ㅎ
글 쓰시는거 보면 항상 너무나 친근한 이웃 같으세요~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존경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 시점
답답.... 하고
마위에 계란 던지는 심정이라 할까..... ㅠ ㅠ

주촌 2009.03.07 10:25

얼른 뵈기를 청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논두렁에 쭉캐러 갈까요.....^..^

휘가로 2009.03.07 10:51

노공이산님 ^^^언제나 뵈수있어요 지는농부라서 작년 농사 끝나고 찾으려 했더니~~~금년 3/4월에 한번 나오실수 없나요^^꼭한번 뵈구 싶어요^^

노공이산 아자~ 2009.03.07 11:21

ㅋㅋㅋ 즐겁네요ㅋㅋㅋ

짐주 2009.03.07 11:57

저녁드시며 한가로우신 노부부의 대화가 인상됩니다..... 대화 내용은 살짝 맘 아프지만요..

가홍연 2009.03.07 12:42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재개하였으면 하고요. 인기있는 배우가 새로운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시청자를 즐겁게 한다고해도 싫어 할까요.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죠. 그것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주 밑에서 기~자(기어다님)같이 빌 붙어서 비 판이 아닌 비방,모함,음모 이런 사람들 말 개가 짓는다 생각하고 현실 정치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 현직을 떠나서 누구나 애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박드라마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부탁합니다. 주연: 노공이산 조연:대한민국 국민 모두

bonsan 2009.03.07 12:43

이제서야 댓글이라도 달며,사람사는 내용새를 맡아 봅니다.

anna88 2009.03.07 14:06

자격부족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자니 스스로 찢려서 견제하는것 아닐런지요. 당신옆에 서면 비교되고 능력부족,자질부족,인격 부족,자신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양심이 견딜수 없어 당신을 보고싶어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당신이 그 럽습니다.

신하 2009.03.07 15:37

요즘 낚싯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목을 그럴싸하게 달아놔야 클릭해서 기사를 보니 네티즌 상대로 기자들이 강태공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야 일단 물고기를 잡는 것이니 미끼가 무엇이 되었든 개의치 않고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라 봐야겠죠

희망한아름 2009.03.07 15:44

노무현 대통령님 개의치 마시고 자유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네랄밥 2009.03.07 16:42

조중동 찌라시의 노짱님 까기는 여전하구낭 ㅋㅋ

불암 2009.03.07 18:32

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조중동과 한나라 찌라시들이 몰고 들어진 노통의 말투입니다.
저들은 진실을 미워하지요. 독재와 타협하다보니 차그만 당근에 길들여졌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노통의 말투가 우리가 지녀야 할 진실이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2009.03.07 21:19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공이산님 건강하신 시간이 되세요.

참다운세상 2009.03.07 21:20

수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두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청도 아릅니 2009.03.07 21:48

노공이산님 참 반갑구면유 ㅎㅎ소인배가 나라을 이끌고가니,지저분하게 시비칩니다, 영원한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싶은거 하
세요,,, 불하마을에 불이 옵니다, 내외분 가슴에 불을 맞이하세요 ㅎㅎ,,,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길 두손모아 빕니다()

rudtnr2 2009.03.07 22:36

일부 기자들 참 불쌍하고, 한심하던 생각이드네요..양심껏 살지도 못하고, 시류에 상황에 따라 눈치보고 이리저리 뿌리없이 흔들리
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노공이산님 건강하세요^^

민천 2009.03.07 22:43

전직대통령 이전에 인간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공님께서 국민들과 편안하게 소통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러
지도 저리지도~~~~

코알라ksj7 2009.03.07 23:10

우리아버지랑 비슷하세요. 하하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격이 정 반대이신데,
성격이 한 템포 빠르신 어머니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오해를 많이 사세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나서 어머니가 '그랬던거여?' 그러시면 상황종
료;; 아하하~

소나무Lee 2009.03.07 23:53

항상건강하시기를...기원합니다.

사또, 2009.03.08 16:57

두분이 나누시는 대화가 사람사는 세상 이네요...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시라소니黃 2009.03.08 19:40

다 노짱님의 인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진실된 역사적 보다는 자기들 밥줄이 먼저라 안타깝지만,
그들의 왜곡을 아는 많은 국민이 있습니다요~

일본에서도,미국에서도 뭉은 콩이듯...진실은 바뀔 수가 없지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겠지만, 그 시기가 너무 멀어서 힘이듭니다.

노짱님! 건강하십시오.

쥬이 2009.03.08 20:46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회원가입을 한것도 글로 소리를 낼수 있다는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후시라도 나때문에 당선 안될까 싶어 잠많은 제가 새벽에 세수도 않고 나가 투표하고 개표방송을 맘졸이
며 보게 한 ...그리고 나의 선택을 뿌듯하게 하신분을 이렇게 만날수 있다는게 넘 기쁩니다.
예전 국회에서 현역으로 계절때처럼 쓴소리 마구 마구 하실수 없어서 참 맘이 아픕니다.전직 대통령이란 명예가 명예로 누를거
같아서요...ㅋㅋㅋ.하긴 진작에 감수 하신줄 알지만 전 웬지...여전히 호랑이같은 국회위원시절이 더 당신도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소시민의 생각이....ㅋ

하지만 어쨌든간에 전 당신이 건강히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큰 힘이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어른...아니신거 같애요...당신은 어른이 아니라 국민의 친구 같습니다.편안하지만 든든하고 쓴소리에 힘이 벌컥벌컥 나게
하는 존경하는 친구....ㅋㅋㅋ.
부디 강녕하십시오...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은 정말 든든합니다.
늘...정말 참부터 지금까지 때문힐수 없는 ...정치도 때문지 못하게 하는 당신은 우리의 저의 힘이시니까요...~!!!

행복한 해보 2009.03.08 22:16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네요 ㅎㅎ
우리나라에 이런 든든한분이 계셔서 마음얼마나 뿌듯한지
모름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든든한뺨(어머니가)이 뒤에 계셔서
세상에 두려움이 없듯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대륜 2009.03.08 23:04

영부인님의 내조를 엿봅니다.
위안이 되시지요.

'사람사는 세상'은 대통령님내외분의 다정다감도 있어 행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늘 빕니다^^

100억원드 2009.03.08 23:26

무엇으로 말하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무엇합니까? 화무십일홍이요, 권무십년인걸,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대화와 타협은 어디갔을까요 요즘 정치인 보면 무슨집단인지 도무지 이해 안갑니다.

희망택시 2009.03.08 23:56

그냥 날아가는 까마귀가 까~~~악하고 짖어대는 언론들 그냥 주잡떨며 권력에 두려워 바짝 엎어있어면서 도덕과 양심을 팔고 다니는 회개의 소리로 들으심 좋겠네요 언제나 강건하게 미소짓는 모습으로 대중의 새로운 가치를 퍼트려주세요 그럼 ㄱ~~뻑^***^;;

청산심해 2009.03.09 10:04

정치 재개라도 해서 귀새끼 타도,뉴라이트 타도,친일파 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이 역적무리들 수장이 되어버린 현 국가의 원수가 우리국민의 희망의 싹을 몽게버리고 있습니다.끊었던 담배라도 피우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것 같아서 담배를 다시 피웁니다.

사계절 2009.03.09 13:14

기득권 방어에 골몰하는 일부 언론인들에 의해, 직면한 고난을 극복하려 애쓰는 다수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날로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뺨은 칼보다 잔인하군요.

meari9999 2009.03.09 13:40

내생이끝나는 날까지 사랑하고 존경 할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아자 아자 화이팅 지금의 정권은 시간이 가면 된통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심전심 이라고 아마도 전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부메랑으로

레플루션21 2009.03.09 18:31

맞습니다...맞고요....

내서사람 2009.03.09 18:46

적절한 비유~
영부인님은 센스쟁이~
항상 건강하시고, 빨리 뵙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산중호걸 2009.03.09 21:06

ㅎㅎㅎ 대한민국에 민주시민은...지식인은 다 어디로 갔는지..?ㅎㄷㄷ~~~~

cozy 2009.03.10 00:30

그만큼 우리 대통령의 존재감이 큰거지요.
그래서 두려운거지요.
우리 대통령이니깐 그들이 가질수 없는것을 가진 것에 대한 질시겠지요.

대통령노무현 2009.03.10 09:09

우리 기자들 참 큰일이다~ ㄷㄷ

햇볕지지 2009.03.10 10:20

소중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무슨 연속극이 끝났습니까? 현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정치하신다고 하지만, 남북한이 자유롭게 오가던 때가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으로 햇빛정책은 어려운 일을 실행하신것입니다.

ank골통 2009.03.10 12:55

노공이산님 건강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쓰잘데 없는사람들 신경쓰지마세요 녀뒤유

강꽃임 2009.03.10 15:03

제후배가자살했습니다 벌써두명제입니다 원인은그몹쓸돈때문일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가사람들을궁지로몰고있습니다 이사회가썩었습니다바로잡아야합니다 대통령님님제목처럼사람사는 세상을만들어
야하겠습니다 화이팅님님

아줌마 2009.03.10 17:10

짧지만 솔직한 글, 님과 여사님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 준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platonía 2009.03.10 19:35

편히 사세요...!^^

레스포 2009.03.10 22:24

솔직히말씀드리지만 대통령재직때 전 무척만히욕했지요역시시간이지나야안다고할까요?지금생각해보면 노전대통령은 현명하고,인내심많고,서민을 아는 세심한 국민의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한번 출마를 하신다면 선택을 할 것이고,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주변에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bailey3 2009.03.10 23:38

제임중에 조중동만 박살내 주셨어도 이런일 없었을듯해요 ^^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seablue 2009.03.11 05:22

이유 없는 끝이 없는 그들의 트집에는 무신경이 명약입니다...건강하게 즐겁게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봉하의 인기와 국민적 관심이 그들의 경계와 시기심을 유발시켜 아직도 왜곡과 트집의 주인공이신 불편함은 있지만...그것은 바로 그만큼 봉하의 인기와 국민적 관심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하니까 ...

변해가네 2009.03.11 16:59

맨날 늦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내 강권하십시오~
그냥 행복하십시오~ 온마음으로 진정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질터인데
이제 머지않을 날에 노공이산님 뵈 수 있길 고대합니다~~~ 아자!!!

사랑합니다노짱 2009.03.11 17:18

정말 기자들 문제 많습디다...기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3대 족벌신문사들이 있지요..씨를 말려야 할 것인데..이제 봄,여름이 오니까 씨를 고이고이 말려서 흙 속에 묻어 두고 싶습니다..사람들의 발자국에 짓밟히고 나면 좀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태어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저의 바람입니다 ㄸ

ememoho 2009.03.12 08:57

너무 많은 것에 귀를 열어두면 힘들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한다면 그 외의 것은 신경을 쓰나 안쓰나 시간에 몰려 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부디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정치는 그만한다고 하시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서는 멀리하지 말고 계속 당신의 뜻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제가 대통령이 되시길 바랬던 분이며, 다시 대통령을 뽑으라고 해도 뽑고 싶은 분입니다.

배불뚝 2009.03.12 10:43

기자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두 내외분을 영원히 사랑 할겁니다. 날씨도 따뜻한 봄내음이 나는데, 나들이라도 다니시지요. 너무 집에만 계시면 형수님도 형님도 심적으러 더 부담될겁니다. 노짱님 화이팅!! 우리의 영원한 지존이십니다. 지존이 힘내야 우리도 힘내죠!

부싷돌1 2009.03.12 11:07

영원한 노짱이 되시구유...지금은 제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뽀꾸기 2009.03.13 12:20

미록 짧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글이네요.
이런류의 진심어린 고민이 담긴 글 자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여자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애기(죄송)래요.
상하신 마음에 봄바람을 살짜쿵 불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

푸를른솔아 2009.03.13 16:26

노짱님! 권여사님! 두분의 알콩달콩한 대화 안봐도 선하네요^^ 건강하세요.
저는 좋아도 이렇게 가끔이라도 출연해 주시니 마음이 흐뭇해요()

유다서 2009.03.13 19:04

영부인 께선 안녕 하세요?
한번 지나다가 뵈운 지가 어언 수년(?)
참 까마득 하군요,
왜 이다지 무심한 세월이 흐를까요 꼼꼼히 생각 해 봤죠
아하! 그거닷? 이렇게 말이죠
두서 없는 글 이해 하시고 이만 줄이죠.

근디 난 왜!!! 국모가 없냐고? 에엥 ㄸㄸㄸ..

이글즈 2009.03.13 21:13

이기회에 정치일선에 다시 나서주시지요..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요~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3 23:20

대한민국에서 오직 권양숙여사님과 노무현대통령님
제맘속의 영원한 스타~별.....
비루한 아가씨가 몇자 적어올림니당~ ㅎㅎ

emfvnf1450 2009.03.14 13:17

ㅎㅎㅎ 연속극보시나요 전 일지매만봅니다,
세상돌아가는 꼬라지가 싫어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봅니다,
그전에 즐겨본드라마는 이산 대조영 주몽 연개소문 대왕세종
제일 가슴속깊이 본드라마는
불멸의 이순신
전 역사에서 이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킨 이분이게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지요..

초록유성 2009.03.18 10:24

대조국...대한민국은 시간이갈수록 도탄에빠지고있습니다.이제는 뭐가웁고그런지 헷갈릴정도로 어지럽습니다.저양반이 왜저렇게 가야만하는가...왜 내나라는 친일매국 쓰레기들이 판을치고있는가...뉴라이트 조중동은 왜갈수록 안하무인인가...오늘아침뉴스엔 1300원대로 내려온다는글을보고 그조차도믿을수없는 현실에 내자신이왜이리미운지모르겠습니다...자기들이잘했어니깐...자화자찬할이놈들이 눈에선하고, 더러운권력을 쫓개놓은 터밭을 친일나부랭이들이 다갈아엮어서 이놈저놈할거없이 권력의 시녀나 하수인노릇 줄서서자청하고 힘없고 사회적약자들은 하루하루 힘들어 죽음이란단어를곱씹고있는데...정녕 구세주는없는걸까요...희망이안보인다는게 더고통스럽기만합니다...이놈들이두서없어죄송한데 말할놈의친일쪽마리수구골통놈의새끼들하는짓거리가 꼭 이글처럼 두서없이시작해서 지맘대로들 설치대는군요...정년신은 없는가봅니다...희망이절망입니다...편한하십시오...

중국 김일 2009.03.23 00:41

노무현대통령처럼 위대한분이 조선반도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할수 없다는 사실에대해 넘 가슴아픕니다.그러나 더 높이 더 멀리 날기위해서 잠시 움추리고 휴식하시는것 또한 억울한 일도 아닌듯 싶습니다.종이로 불을 쌀수 없듯이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이후 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째째히 올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라면하는 제목으로 혹은 제가만일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하는 제목으로 격식없이 올리겠습니다. 재미 있게 봐주세요.

주니어 2009.05.23 20:58

주니어 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홈페이지는 추억으로 남겨 두시길

노쟁어페어 2009.05.23 21:58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였다고...

그남자007 2009.05.24 11:44

아 정말.....왜 가셨습니까..... 왜....

커피향기 2009.05.24 12:08

어제 오늘.. 하도 가슴이 먹먹하여 아무 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흔적찾기 하느라 여기 들어와 하나씩 대통령님 글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짧은 글 속에서 님의 너무도 고단하고 외로웠던 근황이 읽혀 정말 너무 아프네요.. 이제 어디서 당신의 그 단단하고 단정하고 다정한 생각과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사랑합니다.

피망잠자리 2009.05.24 12:17

저 역시 집 떠나 혼자생활하는 타지역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없다는 공허함에 어제부터 책도 ...무언가...충격에 빠져 아니겠지 하면서..여기저기 딸돌아 다닙니다.

슬피요슬피 2009.05.24 17:38

우리기자들.....
왜 우리 기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죽음으로 내몬 나쁜사람들을....

아.....

"♥" 2009.05.24 19:40

이렇게..착한사람을.... 왜...하늘나라로...보낸건데요... 저..울면안되는데...나쁜기자들..... 노무현..대통령을...하늘로내몬..나쁜사람... 경호원도...나빠... 찾아야지...유서..아니어야지... 거기서..뛰어내렸으면..얼마나..아팠을까..... 얼마나..울었을까.. 노무현대통령..아저씨... 못지켜줘서..죄송해요... 그리고..사랑했구요... 하늘에서... 울지마세요..

떠로리 2009.05.25 03:20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잊지않겠습니다 2009.05.25 12:59

노무현대통령님 주연의 연속극 다시 보고싶습니다.....

씨앗속 2009.05.25 13:53

너무 보고싶네요. 생전에 말씀 한마디가 너무 새록새록합니다. 답답한걸 싫어 하시나봐요. 먼 산도 보고 싶고, 들안에 화초도 다듬고 싶고, 동네어귀에 나가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을 텐데..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걸 좋아하시던 대통령이셨는데 정말 보고 싶네요. 생전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지못해, 진짜 뻘이 되지못했던 국민으로서 가슴아픕니다.

어랑아랑 2009.05.25 14:13

제인생에 있어서 재미있는 연속극은 당신께서 주연이셨을때 뿐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질 코메디였습니다. 해피엔딩 연속극인 줄 알았더니 비극이 되어버려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보여주실거죠? 영웅신화로.....

뒤뜰 2009.05.25 16:57

내 생애 이렇게까지 정치하는 사람을 존경할수 있을거란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당신은 참으로 많은것을 저희에게 깨우치게 해주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해싸리 2009.05.25 21:32

고향에서 편한 여생 보내시며 국가의 원로로써 큰 역할 해주실거라 믿었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TV에서 밀짚모자 쓰시고 차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보았는데 전직 어느 대통령이 그러셨나요?참 행복해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세상,님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평안하시기만 기원합니다.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haebalak2 2009.05.25 22:57

.....

불판 2009.05.26 00:31

스포츠 신문 보지않시다.

태수,예은맘 2009.05.26 01:31

이제서야 노무현 대통령의 글들을 보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힘들셨으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심적으로 생각할수록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권력을 가진 자들, 기자들, 언론인들 반성해야합니다.. 부디 높은 곳에서 편안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눈물계속난다 2009.05.26 03:57

기자들 정말 왜그런데요...
어이없네 정말 ---
얼마나..답답하셨을까요ㅍㅍㅍㅍ
무슨말하기도 힘들것을듯...
바로 기사떠버리니ㅍㅍ

힘찬내일 2009.05.26 08:47

제맘속 연속극의 주인공 이십니다...

SUN§ 2009.05.26 16:28

기자가 원수이지요(중의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봉화택입니다 2009.05.26 17:29

언제까지 그렇게 두분 따뜻하게 사셔야 했는데...여사님이 넘 힘드셔서 어떡하나요? 정말 어찌나요?

인살라! 2009.05.27 03:49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꼬인 실타래를 풀수 있는 그 어떤 시점으로요.....

투표 2009.05.27 07:12

언론과 방송을 조금이라도 순진하게 생각했네요.언론은 말 만들지 맙시다.
양심이 있다면...기사보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지도 맙시다.
반성하세요

pray 2009.05.27 23:43

맞아요.. 기자들.. 언론... 정말 한심하고 유치한 인간들입니다. 스스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나쁜지 알면서.. 제대로 쓸 자신 없으면
벌어먹더라도 그 업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밟고 버는 쓰레기 같은 돈.. 양심이란 게 없는 걸까요?

chs1007 2009.05.28 03:56

언론을 믿을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사람을 괴롭히는 이기적인 기자들과 언론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노무현
대통령님께 ...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싶습니다... 행복한곳에서 평안하세요...

울보a 2009.05.28 05:54

언론.. 정말 믿을수 없습니다.. 좋은신분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니깐요.. 또한 그걸 국민들이 믿어 버리니깐요..
기자분들도 저희도 잘한건 없네요...
영원한 왕.. 저희 노무현 대통령님.. 다음 세상에서는 꼭 행복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이자.. 아버지...

lmysh 2009.05.28 11:11

대통령님의 새 글을 보고싶은데...
아직도 잠자고 일어나면 꿈처럼
받기지가 않네요..ㅠ

꿈이었으면 2009.05.28 11:12

오늘까지의 일이 모두 연속극이었다면...
그저 긴~꿈이었다고 믿고싶습니다..
이 꿈에서 어서 깨어나고 싶습니다..
이제서야 당신의 진심이 담겨져있는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사랑하게 된것을..지켜드리지 못한것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무지했던 우리 국민들 잘못이지요..죄송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만 눈물 흘리고..
이곳에서 못 누리셨던 자유.....안뜰마당...
자유로우십시오..바람이 되어서...

꿈꾸는강 2009.05.28 15:03

이렇게 대통령이님 올려주신 글 읽고, 글 속의 대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 살아가는 모습도 엿보고 조금 큰 맘먹고 봉화에 가서 얼굴
뵙고... 그렇게 살 수 있을거라 믿었는데..내일이면 영영 떠나시는데 아직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보님을사랑합니다 2009.05.29 10:40

보고싶어요 대통령님..

노미 2009.05.29 18:01

그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이렇게 훌쩍 가버리십니까... 이젠 봉하 마을 앞마당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계시겠지요 아마 앞으로도 봉
하마을을 찾으면 언제나 노 전 대통령이님이 환영해주실거지요? 브이자를 만드시며 이쁘게 찍어 달라고도 하실거지요? 저희 가족사
진 찍을때에도 같이 찍어 주실거지요... 이제는 이룰수 없는 ...하지만 전 믿어요 항상 봉하마을에 계시리라는 ...

하얀노을 2009.05.29 20:03

님 훌륭해서 모두 질투하나봐요..그 자작극에 넘어가신것 아니신지...맘이 아파요.

쥬 2009.05.29 23:16

얼마나 힘드셨으면...대통령님의 글을 보면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세요..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입니다...ㅠ.ㅠ.ㅠ

그리운연두 2009.05.29 23:23

살아생전 이런 소통하는 곳을 왜 알리고 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럽습니다. 항상 대통령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침묵해서 죄송합니
다.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너무 그럽습니다.

nmh 최고 2009.05.30 00:04

감옥이 따로없다.....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쓰라리네요...

노통님보고싶어요 2009.05.30 00:26

아직 봉화마을도 못가봤는뎨 이리 가시면 저는 어찌하라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행복 사랑 2009.05.30 12:07

어떻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다르게 들을까요 그분들이 귀는 참다른가봅니다 휴~

jungpiri 2009.05.30 14:06

이젠 안계신데 늦게나마 당신과 이 공간에서 공유하고품마음에 글 올립니다, 너무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그곳에선평안 하소서

버섯소녀 2009.05.30 21:22

너무 유명해서 연속극에 영상이 뜨나봅니다. 요즘 연속극도 참... 근데 지금은 연속극이라도 좋으니 그 얼굴, 목소리 들어라도 보면 합니다. 요즘 연속극은 소재가 막창이고 종영도 안해서 그 짜증어...

ansaudwns 2009.05.30 22:12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의 깊고 드높으신 뜻과 지켜오신 굳은 신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부끄럼없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움과 2009.05.31 01:44

ㄸㄸ 정말 좋은마음을가진 정치인은 살기 힘든 나라인가보네요

그분의딸 2009.05.31 13:51

그런 기자들...정말 큰 일 낸거네요--
나쁜놈들...우리 대통령님 살려내 이것들아...

날개잃은물새 2009.05.31 15:51

모든것 다 털어내시고 이제는 부디 편안하게 쉬십시오.

엄지공주2 2009.05.31 22:30

봉화마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항상 건강하시고 김해 발전을 기대하며 담에 뵈 날을 기대하며 살았는데...참으로 허망합니다...청와대 기록물 유출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그냥 잘살게 지켜보시지 왜! 전직 대통령과 자존심대결을 했는지..그렇게 자신이 없었었는지..어이~쿠!한심한지.. 손녀와 자전거타는 모습을 보시면 가슴이 썩"하지 않으십니까? 경제살린다고 뽐았더니 경제는 더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서야...새드라마보다 인기있는드라마 재방송이 더 썩나요....

환생 2009.05.31 23:00

대통령께서 떠나신 후 이 글을 읽으니 여사님과의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우리여사님,,기운차리세요

부엉이 날다 2009.06.01 14:09

정말 한편의 연속극을 보는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봉화마을에 가면 대통령님을 만나 뵈 수 있을것만 같은데...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정말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눈물이슬 2009.06.05 21:11

왜 그렇게 저희가 힘들게 했으면서도 말씀을 안 하셨나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흑 편히 쉬세요

xogus 2009.06.05 22:36

지금까지 받은고통 다 잊으시고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서 편히쉬세요

왈순아지메 2009.06.06 11:56

우린 이나라 큰 어른 한분을 잃었군요"

봄옥이~* 2009.06.07 12:48

우리나라 기자들 진짜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길 바랍니다..

영원히당신만을 2009.06.07 21:18

점점 언론이 정치에 장악되고 있어서 걱정이예요..노대통령님...

메주님 2009.06.09 12:37

또다시 읽어보니 가슴이 더 아픕니다..오늘은 유난히 더 힘든하루입니다

체제gs 2009.06.11 14:05

가신님 발자취를 더듬으며
소용없는 일인줄 알면서도,
엄청난 그날이 악몽이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바래지는 마음..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지겠지..
슬픔도 찾아 들겠지..

하지만 그제 아니되니 무척 힘이 들고 괴롭군요.
글을 읽으면 كلما 노짱님의 목소리가 쟁쟁 합니다.

너무 아까우신 분,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실 수는 없으시나요?

tndus 2009.06.12 16:33

위에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두..어느날 문득 이곳에 들어와 노공님의 글을 발견하고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푸른바다7 2009.06.14 20:47

우리가 언제, 도적으로 깨뜨렸습니까? 퇴임한 노짱님께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복이후, 친일과 청산도 못한 우리의 역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등, 아직 역사적으로 진실이 채 다 규명되지않은 우리의 역사속에서 정말..... 언론인들, 우리모두가 미친것입니다.

노짱님은 너무 세상에 일찍 나오셨던거예요..

당신은아름답습니다 2009.06.17 01:53

노짱님, 일찍이 여기에 들어 와서 글 올리지 못해 후회가 되네요.
하늘 나라에서는 평안하시죠? 언젠가는 저도 그곳에 님을 뵈러 갈때에 그때는 노짱님께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
네요. 사랑한다는 말두요. 노짱님 사랑합니다~ㅠㅠ

바보할배국민 2009.06.21 05:20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겐 아까운 분...그래서 더욱 죄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정말 저도 언론학도지만...정말이지 우리나라 언론과 기자들 큰일입니다...
특히 조,중,동...이제 대통령님은 언론과의 힘든 힘겨루기를 내려 놓으셨네요..
대통령님을 원치않게 절필하게 만든 조중동 꼭 국민들의 손으로 없애버리겠습니다!!

평화의 집 2009.07.02 22:38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글이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벌써 역사가 되셨네요. 그렇지만 당신은 수많은 국
민들의 가슴속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고 있고, 살아가리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승리의 현화가를 당신 앞에 바
칠 날이 꼭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스스로의 힘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날을 지켜봐주십시오.

날아라오금동 2009.07.06 23:05

정치재개라는 말 티비에서 들었을때 그런가? 생각했어요(가우똥)
그러면서 이명박정부가 노통을 왜곡하고 흠집내려고 하는게 점점 강하게 느껴졌지만
어느정도겠지 생각만 했는데 이리될줄이야... 좀더 빨리 노짱님을 응원해 드릴걸...

박하스 2009.07.11 08:57

대통령님 새로나온 연속극이 막장중에 상막장입니다. 얼른 조기종영시키고 다시는 그런 막장드라마같은 정권은 대한민국에 발도
못붙히게 만들겁니다. 지켜봐주세요.

옴은일엔용기를 2009.07.20 12:56

그들은 노대통령님을 두려워한것일 겁니다..노대통령님보다 학벌과 재산이 많다고 자부했지만...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신들
에게 너무도 부족함을 알았던게죠. 정치 철학도 정책도 없는 그들은 단지 무뇌의 인형들 같습니다....하늘에서도 보고 계신가요...무
너인형들의 만행을...

하나의별나무 2009.07.21 10:01

가끔씩 들어와서 글들을 보고 미소지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멀리하셨다는 게 믿겨지지않아요...

말근 2009.07.22 13:44

그리운 마음에 오늘도 이곳에 와 서성입니다.
이때도 대통령님은 많이 힘드셨군요...

변호사. 2009.08.05 21:18

보고싶습니다..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Qkfroddl 2009.08.17 12:01

노무현이 살아서 탄축을 엄청 피더니만 죽어서도 시끄럽네요.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은 왜 봉하로 가져갔었는지... 짜증스런 인간같
으니..

Qkfroddl 2009.08.17 12:03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라는 말을 쉽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대통령 다워야 대접을 해주
지, 허구한날 헛소리나 해대고 반미나 외치는 데모꾼을 대접해 주라고 하면 좀 도가 지나치는 것이지요.

Qkfroddl 2009.08.17 12:03

행여 노무현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두 번 정치를 하면 나라 완전히 망쳐 놓습니다.

산속에피는꽃 2009.08.18 11:15

내려다 보시고 한 번 웃어 주세요.

다기차나 2009.09.20 08:34

내가 어리석다....

sangrape 2010.01.05 13:55

그리운 대통령님.
대통령님 가시고
긴대중 대통령님도 가시고...
mb는 눈치볼 사람 없어서 무슨일이든지 일사천리로 달립니다.
결식아동 밥값도 잘라서 4대강에 쏟아놓고
서민들 연탄값도 깎아서 4대강에 쏟아놓고
온갖 복지예산 다 뜯어 4대강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난한 서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방송 카메라 대동하고
시장에 몇번 갔다와서는 서민 정책을 한답니다.
님이 안 계신 이 겨울
왜 이리 더 추운지요.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숲의새 2010.04.09 17:29

보고싶습니다... 오늘은 기쁜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명숙전총리의 무죄가 밝혀진 날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안산푸른마을 2010.05.23 01:26

보고싶습니다. 하늘도 우리들 마음을 아느듯 종일 슬픈 눈물을 흘리네요..

쭈**Kathy** 2010.06.18 17:15

교활한 기자들.. 펜이 아니라 칼을 들고 글을 쓰던 기자들..지금이라도 부끄러운줄은 아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살려내란말이다..

두원인 2010.09.12 21:45

노통.. 우리 언론의 수준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기자들의 자질도요.. 음.. 우리는 왜 노통이 그렇게 가신 후에야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지요...!! 가슴이 미어집니다....._O_

흔평쓰기

등록

목록

| NO | 제목 | 조회 | 글쓴이 | 등록일 |
|-----|---|--------|-----|------------|
| 38 |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 27325 | 운영자 | 2009.07.22 |
| 37 |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 4534 | 운영자 | 2009.07.22 |
| 36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 2945 | 운영자 | 2009.07.22 |
| 35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 2706 | 운영자 | 2009.07.22 |
| 34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 13715 | 운영자 | 2009.07.22 |
| 33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 387868 | 노무현 | 2009.04.22 |
| 32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 289429 | 노무현 | 2009.04.21 |
| 31 |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 354982 | 노무현 | 2009.04.17 |
| 30 | 부탁드립니다 (971) | 157178 | 노무현 | 2009.04.08 |
| 29 | 사과드립니다. (1246) | 186147 | 노무현 | 2009.04.07 |
| 28 |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 130872 | 노무현 | 2009.03.19 |
| 27 |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 56636 | 노무현 | 2009.03.15 |
| 26 |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 26086 | 노무현 | 2009.03.13 |
| 25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 30610 | 노무현 | 2009.03.12 |
| 24 |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 26684 | 노무현 | 2009.03.07 |
| 23 |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 16589 | 노무현 | 2009.03.06 |
| 22 |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 52304 | 노무현 | 2009.03.05 |
| 현재글 | 연속극 끝났는데... (271) | 119270 | 노무현 | 2009.03.05 |
| 20 | 정치하지 마라. (275) | 109605 | 노무현 | 2009.03.04 |
| 19 |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 28455 | 노무현 | 2009.03.01 |